

[2022년 9월 KNN 뉴스 돋보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문미진

○ 태풍 보도 칭찬

올해 유난히 강력한 가을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힌남노에 이어 19일 난마돌까지. 태풍 매미 이후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태풍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들을 보면, 기후변화 탓에 향후에도 가을태풍이 늘어나고 그 위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의 태풍보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9월 KNN의 태풍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태풍 보도는 그 시기마다 언론이 주요하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크게 태풍이 오기 전, 태풍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을때로 그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오기 전 언론은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태풍 대비책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KNN은 힌남노의 상륙이 예상되던 9월 2일부터 태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부산기상청 인터뷰를 통해 태풍의 경로, 시기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고요. 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의 산복도로나 경남지역의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풍 대비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관련 보도

- 9월 2일 1. <태풍 힌남노 북상, 취약지역 '초비상'>(박명선)
- 9월 2일 2. <수확앞둔 농가, 태풍에 노심초사>(윤혜림)
- 9월 3일 1. <태풍 '힌남노' 6일 새벽 상륙, 폭우*강풍 동반>(조진욱)
- 9월 4일 1. <폭풍전야 피해 줄이기 분주>(정기형)

다음으로 힌남노가 부산 가까이 다가온 9월 5일에는 삼천포항과 해운대해수욕장을 현장연결해 실시간으로 태풍 북상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태풍 대비책을 전달했는데요. 2년전 부산에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만큼, 유리창 파손에 대한 대비는 창틀을 고정하는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보도

- 9월 5일 4. <월파 우려와 역대급 빌딩풍 대비에 분주>(이태훈)
- 9월 5일 5. <테이프보다는 창틀 고정이 중요>(이민재)
- 9월 5일 6. <'매미'의 악몽, 이중삼중 피해 막기>(윤혜림)

마지막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난후, 태풍이 남긴 흔적을 살피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태풍은 반복되는 재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KNN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뿐 아니라 매번 반복 발생하는 부산의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KNN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에 주목했습니다. 태풍 이전에는 산복도로에 주목했지만 산복도로보다는 해안가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가가 주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침수된 농가의 비닐하우스와 송도의 횃집, 물에 잠긴 냉동고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여 향후 피해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보도

9월 6일 | 7. <수확이 코앞인데...떨어지고 잠기고>(정기형)

9월 7일 | 1. <태풍 피해 상인*농어민, 복구는 '막막'>(이민재)

시민의 피해 외에도, 왜 피해가 컸는지 무엇보다 비슷한 문제가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등 구조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주목은 향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먼저 9월 8일 보도에서는 부산 해안 곳곳에서 발생한 아스팔트 파손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아스팔트 도로가 태풍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한 후 해안도로에 적합한 신소재는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방파제 설치 등을 통해 파도의 압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을 전달한 보도는 아니었지만, 시민을 대신해 해안도로 아스팔트 파손 문제를 짚어봐 좋았습니다.

관련 보도

9월 8일 | 1. <연례행사된 아스팔트 해안도로 파손, 대책은?>(강소라)

9월 9일 | 2. <방파제 넘는 파도에 해안가 속대밭>(황보람)

이어 9월 14일 보도에서는 유난히 피해가 컸던 해안지역을 점검했는데요. 무엇보다 기자는 해당 지역이 올해 5월 국비 지원을 받아 총 공사비로만 380여 억원이 투입된 지역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공사구간은 1km였는데 예산문제로 절반 구간만 공사를 마쳤고, 그 결과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구간에서 파도가 방재시설로 흘러들어왔지만 공사를 마친 구간의 방재시설이 물이 흘러나가는 걸 막으면서 일대가 호수처럼 됐고, 그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9월 14일 | 1. <반쪽짜리 방재시설, 피해 더 키웠다>(이태훈)

끝으로 이번 힌남노는 추석을 앞두고 발생해 그 피해가 더 컸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른 언론들은 추석을 앞두고 교통상황이나 연휴 첫날 모습에 주목했다면 KNN은 추석 전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첫 소식으로 다룬 점도 좋았습니다.

+ 9월 9일 | 1. <추석 연휴에도 피해 복구 안간힘>(최한솔)

○ 태풍 보도 아쉬움

KNN은 좋은 태풍보도를 보여줬지만 아쉬움으로 남은 지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춘 소식을 단신으로 전달한 점입니다. 태풍, 집중 호우로 인해 고리원전에 문제가 생기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2년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때도 신고리 1,2호기와 고리 3,4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춰 시민들의 불안이 컸었는데요.

관련보도 KNN 2020년 9월 4일 <마이삭 강풍에 원전 4기도 멈췄다>

집중호우와 태풍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가동이 멈췄다는 사실’만을 단신으로 단순전달해 불안감만 키운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관련 보도

9월 6일 9. <태풍 영향,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 멈춰>(단신)

또한 태풍으로 인한 사건사고 보도의 층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보도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9월 6일 <유튜브가 뭐길래...태풍 속 ‘위험천만’>인데요. 이 보도는 태풍 복상 중 유튜브 방송을 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례와 함께 태풍 속에도 매뉴얼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배달 노동 사례, 억울함 호소를 위해 고공농성에 나선 하청업체 대표 사례를 엮어 부적절했습니다. ‘위험천만의 사례라 소개했지만, 비판해야 할 점과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점은 향후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 KNN과 스타트업: 칭찬+아쉬움

KNN은 올해 3월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스타트업 프로젝트 ‘위캔플라이’를 시작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운데 ‘위캔플라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프로젝트의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후에는 ‘렛츠고 스타트업’이라는 기획을 통해, 청년에서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부산경남 지역의 스타트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3월 22일 4.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위캔플라이’>(표중규)

3월 25일 <지역 넘어 세계로, 스타트업 ‘인바이즈’>

4월 1일 <다회용 마스크 개발, 스타트업 ‘CALAB’>

4월 8일 <건설현장 안전 지킴이, 스타트업 ‘무스마’>

4월 29일 5. [위캔플라이] 무인시스템 관리, 스타트업 '페이오티'

5월 13일 4. [위캔플라이] 가정용 공구로 세계 진출, 스타트업 '더하이브'

지역스타트업에 대한 주목은 뉴스보도에서 뿐 아니라 ‘인물포커스’로 연결해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위캔플라이 경우에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로 연계 업로드가 돼있어, 부산경남지역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뒀습니다.

관련 자료

8월 12일 [뉴스아이] <“33시간 안에 바다에서 식탁까지” 삼삼해물

9월 20일 [인물포커스] 이현진 삼삼해물 대표

‘위캔플라이’ 유튜브 채널 U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RGznZuHJKLLiPnLyftPAw/videos>

지방소멸 위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역언론이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선택지로 ‘스타트업’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렛츠고 스타트업 기획보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 스타트업 ‘이유’>(강소라)를 통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소개했습니다. 기존 부산의 장애인 교통수단인 ‘두리발’과의 차이

점은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자동배차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배차가 가능하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에 휠체어 공간이 보이지 않아 시청자로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실제 사용자보다는 보도의 초점이 '스타트업 소개'에 맞춰져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순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인 9월 12일, <장애인 버스타기 '불편 넘어 굴욕'>를 통해 다시 한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장애인과의 동행취재 형식이었는데요. 해당 리포팅은 버스 탑승조차 어렵고 설령 탑승을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거부 당하기 일쑤이며, 기사로부터 두리발을 이용하라는 핀잔을 듣는 부산 장애인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현실을 잘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더욱 긴밀히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예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보도

9월 12일 | 2. <장애인 버스타기 '불편 넘어 굴욕'>(강소라)

지역의 스타트업을 소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영리 스타트업 기업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를 우리 지역의 현실과 연결해 점검한 점이 좋았습니다.

지역방송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잡아 6개월 이상 보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KNN은 젊은 청년대표의 스타트업 주목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5,6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도 그 범위를 확장해 지역의 다양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역기업을 응원하고 홍보하는 건 나쁘게만 볼 순 없다고도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이어나가다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도패턴에 사업아이템과 인터뷰이만 바뀌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업 소개, 대표와 직원, 이용자 인터뷰로 이어지는 보도 패턴에서 나아가 실제 지역의 현실과 연결해보는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시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또 KNN의 스타트업에 대한 주목이 6개월이라는 전환점을 돈 만큼 자칫 홍보로만 보이는 기사 패턴에 변화를 기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간의 취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점검과 비판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좋아지게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아쉬운 보도: 정치인 소개 '윤핵관'으로 점철

9월 KNN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소식의 비중이 적었습니다. 정치소식이 적은 가운데 지역 정치인의 의정활동보다 계파를 앞세우는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9월 13일 <정점식, 박수영, 신 윤핵관으로 급부상>인데요. 해당 보도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임명된 6명 중 PK몫으로 경남 고성·통영 정점식 의원이 임명됐다고 정점식 의원에 대해 "튀지 않는 실세 중 실세 윤핵관"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라인', '계파'보다는 '정책'과 '시민'에 주목하는 정치보도를 기대합니다

○ 좋은 보도: 노동 부분

- 노동 보도

미디어비평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경영자, 대표자에 비해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한 주목이 적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요구는 파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때에나 주목되거나, 일상적 뉴스보다는 각을 잡고 ‘기획’ 뉴스로 소비되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운데 KNN 9월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동계 이슈가 일상적 소식으로 배치돼 있어 좋았습니다.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 관련 노동계의 반발을 소개하기도 하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될 위기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9월 7일 | 5.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노동계 반발>(김민욱)

9월 12일 | 4. <화력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고용 불안>(김민욱)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던 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례를 통해 사업장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도 했고,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근거로 지자체 가운데 부산이 산업안전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다고 전달했습니다.

9월 16일 | 2. <산재에 4명 사상, 안전불감증 여전>(김민욱)

9월 17일 | 2. <‘산업안전법 위반’ 부산이 최다>(강소라)

무엇보다 태풍 속에서도 관련 매뉴얼을 안내받지 못한 톨게이트, 택배노동자 사례도 제시해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9월 13일 | 2. <태풍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김민욱)